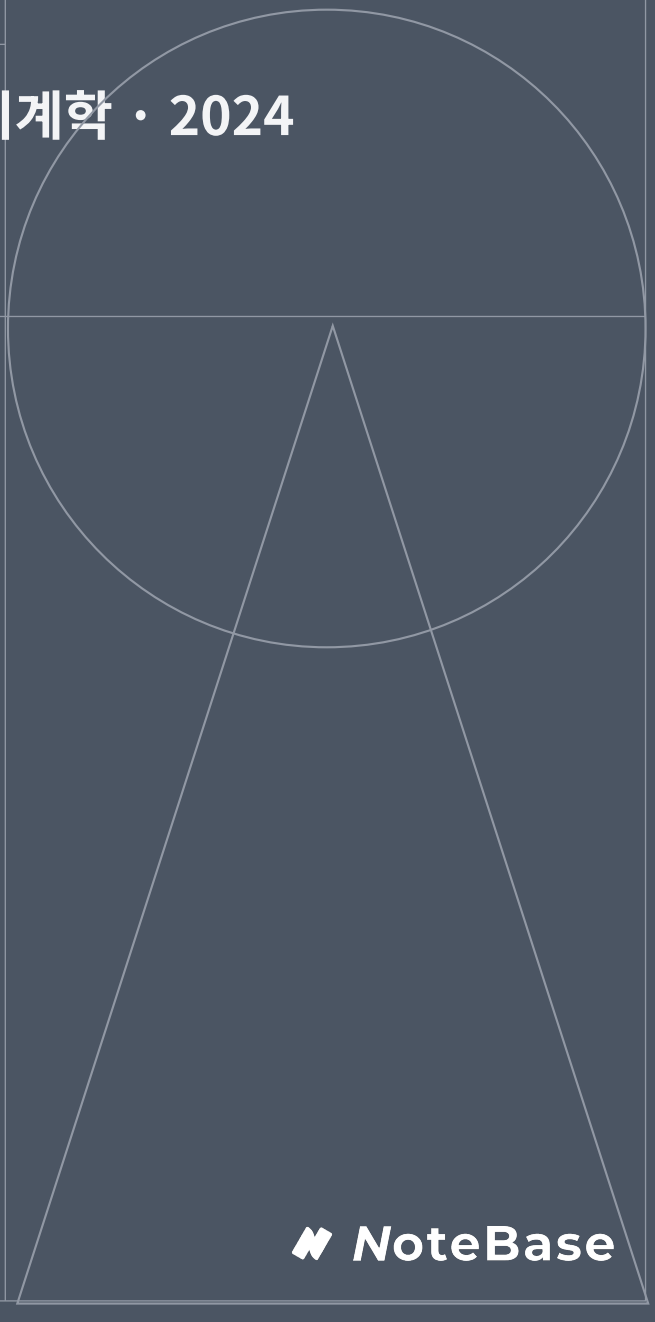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4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4

문 1.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가.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나.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① 가: 부적정의견, 나: 의견거절
② 가: 부적정의견, 나: 한정의견
③ 가: 한정의견, 나: 부적정의견
④ 가: 의견거절, 나: 부적정의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중요하고 전반적인 왜곡표시를 **증거로 확인하면 부적정의견**이다. 증거를 얻지 못했고 그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수 있으면 **의견거절**이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변형된 감사의견은 문제의 원인이 확인된 왜곡표시인지, 감사증거를 얻지 못한 것인지 먼저 구별한다. 이어 실제 영향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한지, 동시에 전반적인지도 판단한다.

가: 부적정의견이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임을 확인한 경우이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근거가 있다.

나: 의견거절이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하여 의견을 형성할 근거가 없고,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의 잠재적 영향도 중요하고 전반적일 수 있다. 이는 왜곡표시가 실제로 확인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부적정의견과 구별한다.

한정의견은 확인된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거나, 증거 부족에 따른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두 경우 모두 전반성까지 제시했으므로 한정의견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는 부적정의견, 나는 의견거절이며, 이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사용할 경우, 다른 시점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이나 발생한 동일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다른 금액으로 보고될 수 있다.

②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또한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③ 이행가치는 부채가 이행될 경우보다는 특히 이전되거나 협상으로 결제될 때 예측가치를 가진다.

④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유출의 현재가치이다. 따라서 이전·협상 결제보다 **직접 이행할 경우**에 특히 예측가치를 가지며, 선지는 이 관계를 뒤바꾸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이나 부채의 발생 당시 거래에 기초한다. 따라서 내용이 같은 자산·부채라도 **거래 시점의 가격이 다르면** 보고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동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모두 다시 측정하는 방식과 다르다.

② O: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시장참여자 간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이다. 취득 당시 거래원가를 더한 금액도, 미래 처분 거래원가를 차감한 순수취액도 아니다. 따라서 취득·궁극적 처분의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자체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X: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하면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등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따라서 이전이나 협상 결제보다 **기업이 직접 부채를 이행할 경우** 예상되는 자원 유출을 예측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이 관계를 반대로 설명한 ③이 옳지 않다.

④ O: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인 가격·가치 변동을 계속 반영하는 측정기준이 아니다. 다만 자산의 손상이나 부채가 손실부담이 되는 경우의 변동은 반영한다. 또한 감가상각·상환 등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까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 공정가치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①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측정치

②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③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④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로 한 조정이 공정가치 전체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면 수준 3으로 분류한다. 관측 가능한 값을 기초로 했더라도 중요한 조정이 관측 불가능하다면 수준 2에 머물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수준 2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다. 아래 O/X는 각 항목이 수준 2에 해당하는지를 뜻한다.

① X.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에 의한 조정이 전체 측정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면 **수준 3**으로 분류한다.
출발점이 관측 가능한 가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준 2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② O. 활성시장의 가격이라도 대상이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이면 수준 2이다. 수준 1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활성시장 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③ O.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비활성시장**에서 관측되면 수준 2 투입변수에 해당한다. 동일한 대상이라는 조건만으로 수준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정기적으로 공시되어 관측 가능한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은 가격 외의 수준 2 투입변수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자산·부채라면 실질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 관측 가능해야 한다.

NoteBase

문 4.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②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치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중간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중간재무보고는 직전 연차보고 이후의 중요한 변화를 갱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미 보고된 정보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갱신까지 모두 주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선지별 해설

중간재무보고는 연차보고보다 짧은 기간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도 접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반복보다 최근의 유의적인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중요하다.

① O: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설명해야 한다. 연차보고 당시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갱신하여 중간기간의 재무정보가 왜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② O: 인식·측정·분류·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상 연간금액에 비해 작다는 이유만으로 중간기간에서 중요한 항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③ O: 앞선 중간기간의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바뀌었는데 그 기간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변동의 내용과 금액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한다. 중요한 추정 변경이 보고 공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④ X: 직전 연차보고서에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갱신은 중간 주석에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래·사건과 변동은 설명해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갱신사항까지 모두 반복해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고객이 일정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면 보상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은 이를 사용하여 매장 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주)한국은 이러한 약정을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주)한국은 20×1년에 판매금액의 1%를 고객에게 보상포인트로 제공하였으며, 1포인트의 공정가치는 ₩0.5이다. 과거 경험에 의하여 보상포인트의 80%가 회수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년에 고객들은 실제로 7,000포인트를 이용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동안 ₩1,000,000을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과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은? (단,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①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 ₩996,000,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 ₩2,800

②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 ₩996,000,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 ₩3,500

③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 ₩996,500,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 ₩2,800

④ 판매시점에서 인식한 매출: ₩996,500, 보고기간 말 회수된 보상포인트로부터 인식한 수익: ₩3,5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식 정답 ②에 대응하는 직접 차감 전제에서는 회수예상률을 반영한 보상포인트 금액 **4,000원을 이연**하므로 판매시점 매출은 996,000원이다. 포인트 수익은 이연금액에 **실제 사용분회수예상분**을 곱한 4,000원×7,0008,000=3,5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고객충성제도의 보상포인트에 배분하여 이연할 금액과 포인트 사용에 따라 인식할 수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판매금액: 1,000,000원
- 포인트 부여율: 판매금액의 1%
- 1포인트의 공정가치: 0.5원
- 회수예상률: 80%
- 실제 사용량: 7,000포인트
- 유효기간: 1년

여기서 포인트의 회수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받는 것을 뜻한다.
공식 정답 ②를 도출하는 계산에서는 0.5원을 회수가능성을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해석하여 80%를 별도로 적용한다. 원문은 0.5원에 회수가능성이 이미 반영되었는지와 상품의 개별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IFRS 15 문단 74·76의 원칙은 거래가격을 상품과 보상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개별 판매가격은 각 상품이나 권리를 따로 판매할 때의 가격이며, 문단 B42에 따라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가능성도 반영한다.

이 문항의 공식 정답 ②는 회수예상률을 반영한 포인트 평가액을 그대로 이연하고 판매대가에서 차감하는 계산과 일치한다. 아래 직접 차감식은 이 채점 답을 재현하는 전제에 한정되며,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배분의 일반 공식과 구분된다. 포인트로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판매시점에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포인트에 배분한 금액은 이연한다.

이연금액 = 부여 포인트 × 1포인트의 공정가치 × 회수예상률

판매시점 매출 = 판매금액 − 이연금액

포인트 수익 = 이연금액×실제 사용 포인트회수예상 포인트

포인트 수익의 분모는 전체 부여량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 총량이다.

상품의 개별 판매가격을 1,000,000원, 포인트의 총 개별 판매가격을 4,000원으로 가정하여 상대적 배분을 적용하면 판매시점 매출은 약 996,016원, 포인트 수익은 약 3,486원으로 선지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공식 채점 답 ②는 직접 차감 전제의 결과이며, 원문에 명시되지 않은 배분·평가 전제를 보완한 상대적 배분 결과와 다르다.

계산 과정

1. 부여 포인트는 1,000,000 × 1% = 10,000포인트이다. 이 중 회수예상량은 10,000 × 80% = 8,000포인트이다.

2. 직접 차감 전제에서 보상포인트에 배분하는 이연금액은 10,000 × 0.5원 × 80% = 4,000원이다. 따라서 판매시점 매출은 1,000,000원 − 4,000원 = 996,000원이다.

3. 회수예상량 8,000포인트 중 7,000포인트가 실제 사용되었으므로 포인트 수익은 4,000원×7,0008,000=3,500원이다. 실제 사용량에 회수예상률 80%를 다시 곱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판매시점 매출 996,000원은 맞지만 포인트 수익 2,800원은 틀리다. 2,800원은 4,000원×7,00010,000으로 계산한 값이다. 분모를 회수예상량 8,000포인트로 고치면 수익은 3,500원이 된다.

② O: 공식 정답에 대응하는 직접 차감 전제에서는 판매금액에서 이연금액 4,000원을 뺀 매출은 996,000원이고, 이연금액에 실제 사용분의 비율 $\frac{7,000}{8,000}$을 곱한 포인트 수익은 3,500원이다.

③ X: 판매시점 매출 996,500원과 포인트 수익 2,800원이 모두 틀리다. 판매시점에는 실제 사용분의 가치 3,500원이 아니라 회수예상분의 가치 4,000원을 이연하므로 매출은 996,000원이다. 포인트 수익은 회수예상량을 분모로 하여 계산한 3,500원으로 고친다.

④ X: 포인트 수익 3,500원은 맞지만 판매시점 매출 996,500원은 틀리다. 판매시점 매출은 실제 사용분의 가치 3,500원이 아니라 이연금액 4,000원을 차감한 996,000원으로 고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800원은 이미 사용한 7,000포인트에 0.5원과 회수예상률 80%를 모두 곱하면 나오는 값이다. 실제 사용량에는 미사용 가능성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또 996,500원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사용분의 가치 3,500원을 뺀 값이다. 판매시점의 이연금액은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회수예상량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여 포인트와 회수예상 포인트를 먼저 구분한다. 이 문항의 직접 차감 전제에서는 판매시점에 회수예상분에 배분한 금액을 이연하고, 포인트 사용시점에는 이연금액에 실제 사용량회수예상량을 곱하여 수익을 계산한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조건만으로 보고기간 말에 모든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수행의무별 배분에서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적용하며, 포인트 평가액에 사용가능성이 이미 반영되었는지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이 문항의 직접 차감 전제에서 판매시점은 회수예상분을 이연하고, 사용시점은 실제 사용분회수예상분만큼 수익을 인식한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은 20×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누적적, 완전참가적)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주)한국은 20×1년과 20×2년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4년 초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3년 배당가능이익 중 ₩1,000,000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20×3년 기말 발행주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단,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보통주자본금	액 면 금 액 발 행 주 식 수 배 당 비 율	₩1,000 3,000주 5%
우선주자본금	액 면 금 액 발 행 주 식 수 배 당 비 율	₩1,000 2,000주 5%

① ₩480,000

② ₩600,000

③ ₩700,000

④ ₩9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누적적 우선주의 과거 2년분과 당기 기본 배당, 보통주의 당기 기본 배당을 배분하면 550,000원이 남는다.
완전참가 조건에 따라 잔여액의 3/5을 보통주에 배분하므로 보통주 배당금은 **48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보통주자본금은 $1,000 \times 3,000 = 3,000,000$원, 우선주자본금은 $1,000 \times 2,000 = 2,000,000$원이다. 두 주식의 기본 배당률은 모두 5%이다.

우선주는 **누적적**이므로 배당하지 않은 20×1년과 20×2년의 우선배당액을 먼저 반영한다. 우선주의 연간 기본배당액은 $2,000,000 \times 0.05 = 100,000$원이므로 과거 2년분은 200,000원이다. 20×3년분 100,000원까지 더하면 우선주에 우선 배분할 금액은 300,000원이다.

보통주에는 20×3년의 기본 배당액 $3,000,000 \times 0.05 = 150,000$원을 배분한다. 보통주에는 과거 미배당액을 누적하는 조건이 없으므로 지난 2년분을 추가하지 않는다. 주주총회가 열린 20×4년의 배당액도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기본 배당 후 잔여액은 $1,000,000 - 300,000 - 150,000 = 550,000$원이다. 우선주가 **완전참가적**이므로 이 잔여액을 보통주와 우선주의 자본금 비율 3:2로 나눈다.

보통주의 추가 배당액은 $550,000 \times \frac{3}{5} = 330,000$원이다. 따라서 보통주 배당금은 $150,000 + 330,000 = 480,000$원으로 ①과 일치한다. 우선주 배당금 520,000원과 합하면 총배당액 1,000,000원이 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의 회계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초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전기에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00, 1주당 전환가격 ₩5,000)가 있으며, 20×1년 4월 1일 동 전환사채 액면금액 중 6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3,000,000이며,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00,000이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주)한국의 희석주당이익은?

① ₩273

② ₩280

③ ₩287

④ ₩295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환사채가 **기초에 전부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면 주식수는 11,000주이고 세후 이자비용 80,000원을 순이익에 더한다. 희석주당이익은 $\frac{3,080,000}{11,000} = 280$원이다.

계산 과정

희석주당이익은 전기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당기 초에 전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전체 전환가능주식수는 $\frac{5,000,000}{5,000} = 1,000$주이며, 4월 1일 실제 전환분은 600주, 미전환분은 400주이다.

실제 유통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은 $10,000 + 600 \times \frac{9}{12} = 10,450$주이다. 희석 계산에서는 실제 전환된 600주의 전환 전 3개월과 미전환 400주의 12개월을 추가한다.
$10,450 + 600 \times \frac{3}{12} + 400 \times \frac{12}{12} = 11,000$주
이는 전체 1,000주가 기초부터 있었다고 본 11,000주와 같다. 실제 전환 이후의 주식을 다시 더하지 않아야 한다.

전환을 가정하면 당기에 인식한 전환사채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후 이자비용을 순이익에 가산**한다. 제시된 100,000원은 당기 이자비용이므로 다시 기간이나 전환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100,000 \times (1 - 0.20) = 80,000$원
조정 순이익은 3,000,000 + 80,000 = 3,080,000원이다.

희석주당이익은 $\frac{3,080,000}{11,000} = 280$원이다. 기본주당이익 $\frac{3,000,000}{10,450} \approx 287.08$원보다 낮으므로 희석효과가 있다. 따라서 ② 28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구입(취득원가 ₩1,300,000, 잔존가치 ₩100,000, 내용연수 5년)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한 20×2년 3월 31일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을 때, 20×2년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유형자산의 평가는 원가모형을 채택하고,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하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이 아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내용연수	5년	3년
잔존가치	₩100,000	₩60,000

① ₩375,000

② ₩397,500

③ ₩500,000

④ ₩615,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추정 변경 전 1년간의 감가상각누계액 240,000원은 유지한다. 변경 후 장부금액에서 새 잔존가치를 뺀 1,000,000원에 연수합계법과 9개월 월할을 적용하면 375,000원이 추가되어, **기말 누계액은 61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문제의 조건처럼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과거 감가상각을 소급 수정하지 않고**,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에 새 추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표의 변경 후 내용연수 3년은 변경 시점부터 감가상각할 기간으로 적용한다.

20×1년 4월 1일부터 20×2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 정액법을 적용한 1년이다. 연간 감가상각액은 $\frac{1,300,000-100,000}{5}=240,000$원
이 중 20×1년 9개월분은 $240,000\times\frac{9}{12}=180,000$원, 20×2년 1□3월분은 $240,000\times\frac{3}{12}=60,000$원이다. 변경 시점 누계액은 240,000원이고 장부금액은 1,300,000 − 240,000 = 1,060,000원이다.

변경 후에는 장부금액에서 새 잔존가치 60,000원을 빼므로 감가상각대상액은 1,060,000 − 60,000 = 1,000,000원이다. 새 내용연수 3년의 연수합계는 3 + 2 + 1 = 6이며, 첫해 배분비율은 3/6이다. 20×2년 4□12월은 그 첫해 중 9개월이므로
$1,000,000\times\frac{3}{6}\times\frac{9}{12}=375,000$원
을 추가로 감가상각한다.

묻는 값은 20×2년 한 해의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이다. 따라서 전기분까지 합하여 180,000 + 60,000 + 375,000 = 615,000원이며,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

②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③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외환차이가 있고 기업이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사이에서 투자 분류가 바뀌어도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지분법 적용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지분법은 투자를 최초 원가로 인식한 뒤 피투자자의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등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반영하여 투자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현금 분배와 투자 분류 변경도 지분법의 계속 적용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① O: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인식한다. 그 후 취득 이후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중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② O: 피투자자로부터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지분법에서는 피투자자의 이익을 지분에 따라 이미 인식하므로, 그 이익의 배당을 다시 수익으로 인식하면 중복되기 때문이다.

③ X: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변경되어도 지분법 적용은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만으로 잔여 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지분법을 중단하고 잔여 지분을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재측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④ O: 지분법 사용을 중단할 때 기존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은 관련 자산·부채를 피투자자가 직접 처분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해외사업장 관련 누적 외환차이는 처분 시 당기손익 재분류 대상이므로, 이 경우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해당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모든 종류의 기타포괄손익이 일률적으로 재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0. ㈜한국의 20×1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년과 20×3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각각 25%, 20%일 때, 20×1년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20×1년 세무조정 항목	금액	추가정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20,000	20×2년 중 처분예정
제품보증충당부채	10,000	20×2년부터 매년 1/2씩 소멸예정
당기 정기예금 미수이자	30,000	만기 20×2년 4월 말
접대비한도초과	5,000	

① 이연법인세자산: ₩2,250, 이연법인세부채: ₩12,500

② 이연법인세자산: ₩2,250, 이연법인세부채: ₩17,500

③ 이연법인세자산: ₩12,500, 이연법인세부채: ₩17,500

④ 이연법인세자산: ₩17,500, 이연법인세부채: ₩12,5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①이다.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세금 효과는 5,000 × 25% + 5,000 × 20% = 2,250원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이다. 평가이익과 미수이자의 세금 효과는 (20,000 + 30,000) × 25% = 12,500원으로 이연법인세부채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이연법인세는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소멸할 때의 세금 효과이다. 따라서 **소멸 예정 연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문제에서는 20×2년분에 25%, 20×3년분에 20%를 적용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품보증충당부채 10,000원은 회계상 비용이 먼저 인식되고 세무상 공제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이다. 매년 절반인 5,000원씩 소멸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은
aligned&5,000×25\%+5,000×20\%&=1,250+1,000=2,250aligned
원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20,000원은 제시된 세무조정의 전제에서 회계상 수익보다 세무상 과세가 뒤에 이루어지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이다. 20×2년에 처분하므로 이연법인세부채는
20,000 × 25% = 5,000원이다.

정기예금 미수이자 30,000원도 제시된 전제에서 미래 과세될 가산할 일시적 차이이다. 20×2년 4월 만기에 소멸하므로 이연법인세부채는 30,000 × 25% = 7,500원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5,000원은 이후에도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당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과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합계는 **이연법인세자산 2,250원, 이연법인세부채 12,500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부채 합계는
5,000 + 7,500 = 12,500원이다. ②는 부채 금액이, ③은 자산과 부채 금액이, ④는 자산 금액이 맞지 않는다. 문제는 두 금액을 각각 묻고 있으므로 여기서 임의로 순액 상계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의 20 × 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할 때,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출채권 증가 ₩20,000 매입채무 감소 ₩30,000
재고자산 감소 50,000 선급금 증가 40,000
감가상각비 3,000 사채상환손실 300
토지처분이익 10,000 손상차손환입 100
기계장치 처분 500 차입금 상환 1,000

① ₩52,200
② ₩52,700
③ ₩53,200
④ ₩53,7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순이익 100,000원에서 운전자본 변동 40,000원과 비현금·투자·재무 관련 손익의 순조정액 6,800원을 차감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53,200원**이다. 기계장치 처분액과 차입금 상환액 자체는 영업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비현금 손익, 투자·재무활동 관련 손익, 영업 운전자본 변동**을 조정한다. 출발 금액은 100,000원이다.

매출채권 증가 20,000원은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현금을 뜻하므로 차감한다.

매입채무 감소 30,000원은 채무 상환을 위한 영업상 현금지출이므로 차감한다.

재고자산 감소 50,000원은 비용으로 반영된 재고 중 당기에 현금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조정하므로 가산한다.

선급금 증가 40,000원은 비용 인식보다 앞서 지급한 영업상 현금이므로 차감한다. 운전자본 조정 합계는 $-20,000-30,000+50,000-40,000=-40,000$원이다.

감가상각비 3,000원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가산한다.

사채상환손실 300원은 재무활동 관련 손실로서 당기순이익을 줄였으므로 영업현금흐름 계산에서는 가산하여 제거한다.

토지처분이익 10,000원은 투자활동 관련 이익이므로 차감한다.

손상차손환입 100원은 현금유입 없이 이익을 증가시킨 금액이므로 차감한다. 이 손익 조정의 합계는 $3,000+300-10,000-100=-6,800$원이다.

기계장치 처분액 500원은 투자활동 현금흐름, 차입금 상환액 1,000원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처분액과 상환액 자체**는 영업현금흐름 계산에 넣지 않는다. 기계장치 처분액을 별도 처분이익으로 오해하여 차감해서도 안 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00,000-40,000-6,800=53,200$원으로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한국의 20×1년 재무분석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매출총이익은?

당좌자산 ₩1,200
유동비율 150%
재고자산회전율 5회
당좌비율 100%
매출총이익률 20%

① ₩600
② ₩750
③ ₩1,200
④ ₩1,8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 600원에 회전율 5회를 적용하면 매출원가는 3,000원이다. 매출총이익률 20%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80%라는 관계를 이용하면 매출총이익은 **750원**이다.

계산 과정

1. 유동부채: 당좌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100\%이다. 당좌비율이 100%이므로 당좌자산과 유동부채는 같아 유동부채는 1,200원이다.

2. 유동자산과 재고자산: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따라서 유동자산은 1,200 × 150% = 1,800원이다.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빼면 재고자산이므로, 재고자산은 1,800 − 1,200 = 600원이다.

3. 매출원가: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가 한 해 동안 매출원가로 전환되는 횟수를 나타내며, 원가 기준으로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재고자산을 적용한다. 보통 기초·기말의 평균재고를 사용하지만, 이 문항처럼 재고자산 금액이 하나만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전율의 분모로 사용**한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600 × 5 = 3,000원이다.

4.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고,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총이익매출액×100\%이다. 이 비율이 20%이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80%**이다. 따라서 매출액은 $\frac{3,000}{0.8}$ = 3,750원이고, 매출총이익은 3,750 − 3,000 = 75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표시에서 중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④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중요성은 항목의 성격·규모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 특유의 판단**이다. 모든 기업과 상황에 적용할 획일적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중요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중요한 정보란 그 누락·왜곡·불분명한 표시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이다. 규모뿐 아니라 성격도 중요하며, 중요한 내용을 부적절한 통합이나 불필요한 정보 속에 가리지 않아야 한다.

① O: 유사한 항목은 중요한 분류별로 구분해 표시하고,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도 중요한 경우 따로 표시한다. 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내용을 무분별하게 합쳐 이용자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까지 모두 개별 표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다른 항목과 통합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 후의 정보가 중요해질 수 있고,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

③ O: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을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 맥락에 적용한 측면이다. 동일한 금액이라도 기업 규모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성격과 규모를 각각 또는 함께 고려한다.

④ X: 중요성은 기업별 맥락과 질적·양적 요소에 달려 있으므로 회계기준위원회가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의 중요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실무에서 수치 기준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중요성 판단을 자동 결정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14. ㈜한국의 20×1년 12월 31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은?

현금 ₩150,000
당좌예금 30,000
정기예금(만기일: 20×2. 6. 30) 100,000
타인발행 당좌수표 50,000
환매채(취득일: 20×1. 9. 10, 만기일: 20×2. 1. 31) 40,000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는 타인발행 약속어음 200,000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5,000
양도성예금증서(취득일: 20×1. 12. 15, 만기일: 20×2. 2. 28) 15,000

① ₩250,000
② ₩290,000
③ ₩335,000
④ ₩3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현금성자산의 3개월 기준은 **취득일부터 만기까지**로 판단한다. 환매채는 제외하고 단기 양도성예금증서는 포함하며, 현금·당좌예금·당좌수표·만기도래 국채이자표와 합하면 25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현금성자산은 단기 현금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되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통상적인 3개월 기준은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현금 150,000원과 당좌예금 30,000원은 보유현금 및 요구불예금이므로 포함한다. 타인발행 당좌수표 50,000원도 통상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으로 현금에 포함한다.

정기예금 100,000원은 결산일로부터도 만기인 20×2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환매채 40,000원 역시 취득일 20×1년 9월 10일부터 만기일 20×2년 1월 31일까지가 3개월을 초과하므로 제외한다. 환매채의 결산일 현재 잔여 만기가 짧다는 이유로 현금성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발행 약속어음 200,000원은 문제에서 매출채권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제외한다. 반면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5,000원은 이미 지급기일이 되어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이므로 포함한다.

양도성예금증서 15,000원은 취득일 20×1년 12월 15일부터 만기일 20×2년 2월 28일까지가 3개월 이내인 단기 상품이므로, 제시된 조건에서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포함되는 금액을 합하면 150,000 + 30,000 + 50,000 + 5,000 + 15,000 = 250,000원이다.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50,000원이며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한국은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매년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40,000, 손상차손(대손상각비) ₩280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25,000이라면, 20×2년 기중에 발생한 매출채권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① ₩120

② ₩130

③ ₩250

④ ₩28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중에 대손이 발생하면 **손실충당금을 차감**하고 기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충당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기중 대손액은 기초 충당금 250원 + 당기 설정액 280원 − 기말 충당금 400원 = **130원**이다.

출제 포인트

손실충당금의 기초 잔액, 당기 설정액, 기말 잔액으로 기중에 충당금과 상계한 대손액을 역산한다.

조건 정리

20×1년 말 매출채권: 25,000원
20×2년 말 매출채권: 40,000원
기말 손실충당금 설정률: 매출채권 잔액의 1%
당기 손상차손으로 충당금에 추가한 금액: 280원
발문은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을 묻지만, 공식 정답 ②는 충당금과 상계한 기중 대손액 130원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회계상 손상차손 비용 자체는 제시된 280원이므로, 발문의 용어와 공식 채점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사용할 공식

기말 손실충당금 = 기초 손실충당금 − 기중 대손액 + 당기 설정액
기중 대손액 = 기초 손실충당금 + 당기 설정액 − 기말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금액을 미리 반영하는 계정이다. 실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기존 충당금을 사용하고, 기말에는 필요한 잔액을 맞추기 위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초 손실충당금 = 25,000 × 1% = 250원
전기 말 충당금은 당기 초 잔액으로 이어진다.
2. 기말 손실충당금 = 40,000 × 1% = 400원
400원은 결산 후 남아 있어야 하는 충당금 잔액이다.
3. 기중 대손액 = 250 + 280 − 400 = 130원
검산하면 250 − 130 + 280 = 400원이다. 기중 대손 처리 후 충당금은 120원이고, 여기에 280원을 추가하여 기말 잔액 400원을 맞춘다.

선지별 해설

① X: 120원은 기말 설정 직전 충당금 잔액인 400 − 280의 결과이다. 기중 대손액은 기초 충당금 250원에서 이 잔액을 뺀 130원이다.
② O: 기초 충당금 250원에 당기 설정액 280원을 더하고 기말 충당금 400원을 빼면 기중 대손액은 130원이다.
③ X: 250원은 전기 말 매출채권 25,000원에 1%를 적용한 기초 충당금이다. 기중에 사용한 충당금은 250원 전체가 아니라 130원이다.
④ X: 280원은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충당금을 늘린 금액이다. 이 문항에서 구하는 충당금과 상계한 기중 대손액은 13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 충당금 잔액과 당기 설정 비용을 혼동하기 쉽다. 400원은 결산 후 충당금 잔액이고, 280원은 이를 맞추기 위해 추가한 금액이다. ①의 120원은 기중 대손액이 아니라 추가 설정 전 남아 있던 충당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채권 잔액에 설정률을 곱해 기초와 기말 충당금을 구한다. 실제 대손 처리는 충당금을 줄이고, 손상차손을 통한 추가 설정은 충당금을 늘린다는 방향을 적용하여 잔액 변동식을 세운다.

암기 포인트

충당금: 기초 − 기중 대손 + 당기 설정 = 기말.

NoteBase

문 16. ㈜한국은 20x1년 매출총이익을 ₩4,500으로 보고하였다.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총매입액은?

● 매출자료	
총매출	₩13,000
매출환입	2,000
● 매입자료	
매입	?
매입에누리	₩1,000
매입할인	200
매입운임	500
● 재고자산 자료	
기초재고	₩650
기말재고	700

① ₩6,500

② ₩6,550

③ ₩7,250

④ ₩7,75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순매출 11,000원에서 매출총이익 4,500원을 빼면 매출원가가 6,500원이다. 재고 증감과 매입에누리·할인·운임을 역산하면 **총매입액은 7,25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먼저 순매출액을 구한다. 총매출 13,000원에서 매출환입 2,000원을 차감하면 $13{,}000 - 2{,}000 = 11{,}000$원이다. 매출총이익이 4,500원이므로 매출원가는 $11{,}000 - 4{,}500 = 6{,}500$원이다.

총매입액을 P라 하자. 매입에누리 1,000원과 매입할인 200원은 매입원가에서 빼고, 매입운임 500원은 취득에 필요한 원가로 더한다. 따라서 당기 순매입원가는 $P - 1{,}000 - 200 + 500 = P - 700$원이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 순매입원가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다. 주어진 기초재고 650원과 기말재고 700원을 대입하면 $6{,}500 = 650 + (P - 700) - 700 = P - 750$이다. 따라서 **총매입액은 7,250원**으로 정답은 ③이다.

검산하면 순매입원가는 $7{,}250 - 1{,}000 - 200 + 500 = 6{,}550$원, 매출원가는 $650 + 6{,}550 - 700 = 6{,}500$원이며, 매출총이익은 $11{,}000 - 6{,}500 = 4{,}500$원으로 일치한다.

①의 6,500원은 매출원가이고 ②의 6,550원은 순매입원가이므로 총매입액과 다르다. ④의 7,750원은 매입운임 500원이 재고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빠뜨리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총매입·순매입·매출원가**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17. ㈜한국은 재고자산 추정방법으로 저가기준소매재고법(평균원가 적용)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한국의 20×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기말재고는?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5,000	₩9,000
당기매입	37,000	48,000
매출액		50,000
순인상액		3,000
순인하액		1,000
종업원할인		1,000

① ₩4,200

② ₩4,800

③ ₩5,600

④ ₩6,4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저가기준에서는 **순인하액을 차감하기 전 판매가액**으로 원가율을 구하므로 $\frac{42,000}{60,000} = 70\%$이다.
순인하액·매출·종업원할인을 차감한 기말 판매가액 8,000원에 이를 적용하면 5,6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저가기준소매재고법은 기말재고의 판매가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액을 추정한다. 평균원가를 적용하므로 원가율 계산에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모두 포함한다. 저가기준에서는 순인상액은 원가율의 판매가 분모에 더하지만 순인하액은 그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표의 기초재고 원가 5,000원과 매입원가 37,000원을 더하면 판매가능재고 원가는 42,000원이다. 원가율 계산용 판매가액은 기초 9,000원＋매입 48,000원＋순인상액 3,000원＝60,000원이다. 따라서 원가율은 $\frac{42,000}{60,000} = 70\%$이다.

기말재고의 실제 판매가액을 구할 때에는 순인하액 1,000원을 차감한다. 또한 이미 판매된 상품이 할인 전 판매가로 재고에 남지 않도록 매출액 50,000원과 종업원할인 1,000원을 함께 차감한다. 따라서 기말재고 판매가액은 60,000원−1,000원−50,000원−1,000원＝8,000원이다.

기말재고 추정액은 $8,000 \times 0.70 = 5,600$원이다. 순인하액을 원가율 분모에서 제외하는 것과, 기말재고 판매가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20×1년 기말재고는 ③ 5,600원이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구입한 구형 기계장치를 20×2년 6월 30일 신형으로 교환하였다. 구형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65,000(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5,000, 연수합계법 상각)이며, 교환시점에 합리적인 공정가치는 ₩22,000으로 측정되었다. (주)한국은 구형 기계장치와 함께 현금 ₩12,000을 지급하고 신형 기계장치로 교환하였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의 교환손익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① 처분손실 ₩3,000

② 처분이익 ₩3,000

③ 처분손실 ₩7,000

④ 처분이익 ₩7,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연수합계법으로 1년 6개월간 상각한 누계액은 40,000원이고, 교환일의 구형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25,000원이다. 공정가치 22,000원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므로 **처분손실 3,0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65,000 - 5,000 = 60,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의 분모는 내용연수 3년의 합인 $3 + 2 + 1 = 6$이며, 연도별 상각률은 차례로 3/6, 2/6, 1/6이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60,000 \times \frac{3}{6} = 30,000$원이다. 교환일은 20×2년 6월 30일이므로 두 번째 해에는 6개월분을 반영하여 $60,000 \times \frac{2}{6} \times \frac{6}{12} = 10,000$원을 상각한다.

교환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40,000원이고, 구형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65,000 - 40,000 = 25,000$원이다. 잔존가치는 상각대상금액을 구할 때 이미 고려했으므로 장부금액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제공한 구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교환손익으로 인식한다. $22,000 - 25,000 = -3,000$원이므로 **처분손실 3,000원**이며 ①과 일치한다.

추가 지급한 현금 12,000원은 신형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형 취득원가는 $22,000 + 12,000 = 34,000$원이다. 현금을 구형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에 더하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문 19. ㈜한국은 20×1년 1월 1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어음(액면금액 ₩100,000, 1년 만기, 이자율 10%)을 받았다. ㈜한국이 20×1년 7월 1일 동 어음을 할인(할인율 15%)하였을 때,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동 어음의 할인은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① ₩1,750

② ₩3,250

③ ₩5,000

④ ₩8,2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은 발생이자를 포함한 105,000원이고 할인 후 수취액은 101,750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인 3,250원이 금융자산처분손실이다.

계산 과정

어음의 만기금액은 액면금액에 1년분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연 이자는 100,000 × 10% = 10,000원이므로 만기금액은 110,000원이다.

7월 1일 할인 시점부터 만기까지는 6개월이다. 은행 할인액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만기금액**에 할인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110{,}000 \times 15\% \times \frac{6}{12} = 8{,}250$원
따라서 할인으로 받은 현금은 110,000 − 8,250 = 101,750원이다.

할인 시점까지 발생한 6개월분 이자수익은 $100{,}000 \times 10\% \times \frac{6}{12} = 5{,}000$원이다. 따라서 처분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액면금액과 발생이자를 합한 105,000원이다.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하므로 차입거래가 아니라 처분거래로 처리한다. **장부금액과 수취대가의 차액**이 처분손익이므로, 처분손실은 105,000 − 101,750 = 3,250원이다. 은행 할인액 8,250원 전체를 처분손실로 보는 것이 아니며,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후급, 만기 3년)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동 사채를 20×1년 12월 31일 ₩96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사채상환손익은?

- 20×1년 1월 1일

(차)	현 금	950,000	(대)	사 채	1,000,000
	사채할인 발행차금	50,000			

- 20×1년 12월 31일

(차)	이자비용	95,000	(대)	현금	80,000
				사채할인 발행차금	15,000

① 사채상환손실 ₩5,000

② 사채상환손실 ₩15,000

③ 사채상환이익 ₩5,000

④ 사채상환이익 ₩1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할인발행차금 15,000원을 상각하면 사채 장부금액은 965,000원이 된다. 이보다 적은 960,000원에 상환하므로 **사채상환이익 5,000원**이 발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사채상환손익은 **상환 직전 장부금액과 상환대가**를 비교하여 구한다. 액면금액이나 최초 발행금액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상환일까지의 할인발행차금 상각을 먼저 반영한다.

1월 1일 분개에서 액면금액은 1,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50,000원이므로 최초 장부금액은 1,000,000 − 50,000 = 950,000원이다. 할인발행차금은 사채 장부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다.

12월 31일 분개에서 이자비용은 95,000원이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는 80,000원이다. 차이 95,000 − 80,000 = 15,000원이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따라서 미상각 할인발행차금은 50,000 − 15,000 = 35,000원이고, 상환 직전 장부금액은 1,000,000 − 35,000 = 965,000원이다.

장부금액 965,000원의 부채를 960,000원만 지급하여 소멸시키므로 차액은 **상환손실이 아니라 상환이익**이다. 이미 지급 처리한 이자 80,000원은 상환대가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사채상환이익은 965,000 − 960,000 = 5,000원이며,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1. ㈜한국의 20×1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파악된 기말재고자산은 ₩3,000이다.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위탁판매목적으로 ㈜대한에 적송한 제품 ₩1,000
적송품 운반비용 100
운송중인 상품(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 1,500
운송중인 상품(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 700
운송중인 상품(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 2,000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용상품 500

① ₩8,100
② ₩8,000
③ ₩6,400
④ ₩5,9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①이다. 실사액 3,000원에 적송품과 운반비 1,100원, 선적지인도조건 매입분 1,500원, 도착지인도조건 판매분 2,000원, 시용상품 500원을 더하면 **8,1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실지재고조사액 3,000원에서 출발하되, 회사 밖에 있어 실사에는 빠졌지만 보고기간 말 회사에 귀속되는 재고를 더한다. **물리적인 보관 장소와 재고의 귀속**은 다를 수 있다.

위탁판매용 적송품 1,000원은 수탁자에게 보냈더라도 아직 최종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았다면 위탁자인 ㈜한국의 재고이다. 적송품 운반비 100원도 해당 재고를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한 원가이므로 함께 포함한다. 가산액은 1,100원이다.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 상품 1,500원은 선적 시점에 매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더한다. 반면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 상품 700원은 아직 매입자에게 도착하지 않아 ㈜한국의 재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 상품 2,000원은 고객에게 도착하기 전이므로 판매자인 ㈜한국의 재고에 남아 있다. 따라서 2,000원을 더한다.

고객이 아직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용상품 500원은 시험 사용을 위해 보낸 것으로, 아직 판매가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의 시용판매 전제에 따라 ㈜한국의 재고에 포함하므로 500원을 더한다.

기말재고는
aligned&3,000+1,000+100+1,500&+2,000+500=8,100aligned
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②의 8,000원은 적송품 운반비를 누락한 금액이며, ③의 6,400원과 ④의 5,900원도 위 귀속 기준을 모두 반영한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2.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목적으로 건물을 취득(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1월 1일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한다. 20×2년 말에 건물을 ₩510,000에 처분하였다. 유형자산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시점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

· 20×1년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430,000
· 20×2년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540,000

① 20x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50,000을 반영한다.

② 20x1년 말 재평가 시점에서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손실 ₩20,000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③ 20×2년 말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 ₩110,000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④ 20×2년 말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 ₩50,000을 20×2년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2년 말 공정가치 평가 후 장부금액은 540,000원이다. 이를 510,000원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이 아니라 30,000원의 처분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20×1년에는 자가사용 건물의 재평가모형을, 20×2년 임대용 전환 후에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두 모형의 평가손익 처리와 감가상각 여부를 구분하고, 처분손익은 처분 직전 장부금액과 비교한다.

① O: 20×1년 연간 감가상각액은 $\frac{500,000-0}{10}=50,000$원이다. 먼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여 재평가 직전 순장부금액을 450,000원으로 만든다. 이후 문제에서 정한 누계액 제거법에 따라 재평가 때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므로, 재평가 후에도 누계액 50,000원이 남는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450,000원과 20×1년 말 공정가치 430,000원의 차이는 20,000원이다. 같은 자산의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③ O: 20×2년 초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장부금액은 430,000원이다. 이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0×2년 말 평가이익은 540,000원−430,000원＝110,000원이며 전액 당기손익이다.

④ X: 평가 후 장부금액 540,000원인 투자부동산을 510,000원에 처분하므로 처분손익은 510,000원−540,000원＝−30,000원이다. 따라서 처분손실 30,000원을 반영해야 한다. 20×2년의 평가이익과 처분손실을 합친 손익효과는 80,000원이지만, 이것을 처분이익이라고 부르거나 50,000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23.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②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취득일에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④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금융자산 전체의 제거손익은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제거일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를 비교하여 계산한다. 취득 이후의 측정 변동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기업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때 인식한다. 단순히 장래에 계약을 체결할 의도만 있는 경우와 구별한다.

② X. 금융자산 전체의 제거손익을 계산하는 기준은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제거일에 측정한 장부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수취한 대가와 제거일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수취 대가에는 새로 얻은 자산에서 새로 부담한 부채를 차감한 금액도 포함한다. 취득 후의 측정 변동을 무시하고 최초 공정가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③ O.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면 그 자산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채권이 결제되어 수취권리가 없어지면 해당 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④ O. 정형화된 매입·매도는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이다. 이에 대해서는 **매매일 회계처리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인식·제거할 수 있다. 동일하게 분류되는 금융자산에는 선택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NoteBase

문 24. 충당부채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②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③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는 현재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로 측정하고, 자산 처분이익은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한다.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임의 금액을 잡거나 가능한 최대 지출액을 무조건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추정에는 관련 사건과 상황의 위험 및 불확실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의도적으로 과대계상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위험을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③ O: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미래의 예상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급 시점이 다르면 현재의 경제적 부담이 다르기 때문이다.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할인할 것을 요구하는 설명은 아니다.

④ X: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처분이 충당부채 발생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도 예상 이익을 차감해 부채를 줄일 수 없다. 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25. 무형자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은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②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이다.

③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내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④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④이다. 무형자산은 정의 요건과 함께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 및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인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자산은 그 권리의 **이전가능성이나 분리가능성과 관계없이** 식별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다. 식별가능성의 기준은 '분리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상·법적 권리에서 발생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두 기준을 동시에 요구하지 않는다.

② X: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통제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고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권리가 없으면 통제의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르다.

③ X: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최초 인식 시 이용 가능한 증거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때 내부 증거보다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선지는 그 우선순위를 반대로 설명했다.

④ O: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에 대해, 관련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단순히 무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식별가능성·통제 등 정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NoteBase

문 26.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금액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자산손상을 인식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③ 처분부대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할 때 차감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를 포함한다.

④ 사용가치 측정 시 현금흐름은 주주가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어도 **다른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으로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의 측정이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장부금액보다 낮아도 다른 하나가 장부금액 이상이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장부금액이 두 값 중 큰 금액마저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② O: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더라도 적절한 가치평가기법과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부재만으로 처분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②가 옳다.

③ X: 차감하는 처분부대원가에서는 **이미 부채로 인식한 금액을 제외**한다. 이미 인식된 부채를 다시 처분부대원가로 차감하여 같은 부담을 중복 반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를 포함한다'는 부분이 잘못이다.

④ X: 사용가치의 미래현금흐름은 주주가 아니라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다. 이때 자산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합리적이며 뒷받침 가능한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 승인 주체를 주주로 바꾼 것이 오류이다.

NoteBase

문 27.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이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20, 단위당 변동가공원가 ₩80이 발생하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이 발생한다. 제품 판매과정에서는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가 ₩5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는 ₩10,000이 발생한다. (주)한국이 목표이익 ₩15,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의 판매량은? (단, 생산량과 판매량은 동일하다.)

① 225단위

② 250단위

③ 275단위

④ 300단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 400원에서 제조·판매 변동원가 250원을 뺀 150원이다. 고정원가 30,000원과 목표이익 15,000원을 합한 금액을 회수하려면 **300단위**를 판매해야 한다.

계산 과정

단위당 변동원가에는 직접재료원가 120원, 변동가공원가 80원, 변동판매관리비 50원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120 + 80 + 50 = 250$원이다. 판매관리비도 판매량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이면 제외하지 않는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 $400 - 250 = 150$원이다. 이는 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 **고정원가 회수와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금액**이다.

연간 고정원가는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원과 고정판매관리비 10,000원을 합한 30,000원이다. 목표이익 15,000원까지 얻으려면 총공헌이익은 $30,000 + 15,000 = 45,000$원이어야 한다.

판매량을 Q라 하면 $150Q - 30,000 = 15,000$이므로 $Q = \frac{30,000 + 15,000}{150} = 300$단위이다. 따라서 필요한 판매량은 **300단위**로 ④와 일치한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으므로 재고 증감에 따른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이연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300단위를 판매할 때 매출액 120,000원에서 변동원가 75,000원과 고정원가 30,000원을 차감하면 목표이익 15,000원이 확인된다.

NoteBase

문 28. ㈜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이용가능한 연간 기계시간은 1,200시간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제품의 최적생산량을 결정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한국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단, 제품 A와 제품 B의 수요는 무한하다.)

구 분	제품 A	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	₩2,000	₩1,500
단위당 변동원가	1,500	900
단위당 소요 기계시간	2시간	3시간

① ₩150,000

② ₩240,000

③ ₩300,000

④ ₩32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제약자원인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은 A가 250원, B가 200원이다. 수요 제한이 없으므로 A를 600개 생산하면 최대공헌이익은 3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계시간 1,200시간이 생산을 제한하므로 제품 한 개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기계시간 한 시간당 공헌이익을 비교한다.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이다.

제품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0원−1,500원＝500원이고, 제품 B는 1,500원−900원＝600원이다. 제품 한 개만 비교하면 B가 크지만, A는 2시간, B는 3시간을 사용한다.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은 A가 $\frac{500}{2}=250$원, B가 $\frac{600}{3}=200$원이다. 따라서 같은 한 시간을 A 생산에 쓰면 B보다 공헌이익을 50원 더 얻는다.

두 제품의 수요가 무한하고 다른 제약이 없으므로 모든 기계시간을 A에 배분한다. A의 최적생산량은 $\frac{1,200}{2}=600$개이고 B는 0개이다. 이때 최대공헌이익은 600개×500원＝300,000원이다.

B만 생산하면 $\frac{1,200}{3}=400$개×600원＝240,000원으로 더 작다.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이 B보다 작더라도 제약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 A 전량 생산이 최적이다.

따라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③ 300,000원이다.

NoteBase

문 29.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적용절차로 가장 옳은 것은?

가. 활동중심점의 설정 및 원가 집계
나. 활동 분석
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라. 활동원가동인의 선택
마.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의 계산

① 나 → 가 → 라 → 마 → 다
② 나 → 라 → 마 → 가 → 다
③ 나 → 가 → 라 → 다 → 마
④ 나 → 라 → 가 → 마 → 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을 파악하고 원가를 집계한 뒤,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배부율을 계산**하여 제품에 원가를 배부한다. 활동원가와 배부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실제 배부액을 구할 수 있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가 → 라 → 마 → 다

나. 활동 분석: 제품 생산에 어떤 활동이 수행되고 자원이 어디에서 소비되는지 파악한다. 예를 들어 작업준비, 검사, 자재운반 등의 활동을 식별해야 이후 원가를 활동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활동중심점의 설정 및 원가 집계: 분석한 활동을 적절한 활동중심점으로 묶고 해당 활동이 소비한 자원의 원가를 모은다. 이렇게 **활동별 원가를 먼저 집계**해야 각 활동의 원가를 배부할 수 있다.

라. 활동원가동인의 선택: 활동원가를 원가대상에 연결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선택한다. 작업준비 활동에는 준비 횟수, 검사 활동에는 검사 횟수처럼 활동 소비를 잘 나타내는 기준을 사용한다.

마.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의 계산: 집계한 활동원가를 선택된 원가동인의 총량으로 나누어 원가동인 한 단위당 배부율을 구한다. **원가동인이 정해져야 배부율의 분모도 정해진다**.

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각 제품이 소비한 원가동인의 양에 해당 활동의 배부율을 곱하여 활동별 원가를 배부한다. 제품에 배부된 활동별 금액을 합하면 그 제품의 제조간접원가가 된다.

NoteBase

문 30. ㈜한국의 상반기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경우, 7월의 예상 생산량이 400단위일 때 제조원가는?

월	생산량	제조원가	월	생산량	제조원가
1월	240단위	₩475,000	4월	270단위	₩530,000
2월	210단위	390,000	5월	300단위	560,000
3월	200단위	400,000	6월	250단위	500,000

① ₩640,000

② ₩680,000

③ ₩720,000

④ ₩8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생산량 최고점과 최저점으로 구한 단위당 변동원가는 1,600원, 고정원가는 80,000원이다. 따라서 400단위의 제조원가는 80,000 + 1,600 × 400 = 7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고저점법은 **원가가 아니라 조업도인 생산량**이 가장 높은 관측치와 가장 낮은 관측치를 선택한다. 최고점은 5월의 300단위·560,000원, 최저점은 3월의 200단위·400,000원이다.

2월 원가 390,000원이 가장 낮더라도 생산량은 210단위이므로 최저점이 아니다. 1월의 240단위·475,000원, 4월의 270단위·530,000원, 6월의 250단위·500,000원도 생산량의 양 끝에 해당하지 않아 고저점법의 계수 계산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단위당 변동원가 b는 원가 차이를 생산량 차이로 나누어 구한다.
aligned&b=(560,000-400,000)/(300-200)&=160,000/100=1,600aligned
원이다.

총고정원가 a는 최고점에서 $a = 560{,}000 - 1{,}600 \times 300 = 80{,}000$원이다. 최저점을 대입해도 $400{,}000 - 1{,}600 \times 200 = 80{,}000$원으로 같으므로 추정식은 $Y = 80{,}000 + 1{,}600X$이다.

예상 생산량 400단위를 대입하면 $Y = 80{,}000 + 1{,}600 \times 400 = 720{,}000$원으로 정답은 ③이다. ①의 640,000원은 변동원가만 계산해 고정원가를 빠뜨린 값이며, ②의 680,000원과 ④의 800,000원은 추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400단위는 관측된 생산량 범위인 200~300단위 밖에 있다. 문제에서는 같은 원가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추정식을 적용하지만, 실제 예측에서는 관련 범위와 원가구조 변화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문 31. ㈜한국의 20×1년 분기별 판매예산은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제품재고는 300단위이며, 각 분기말의 제품재고량은 다음 분기 예산판매량의 2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이 20×1년 2분기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산판매량	2,300단위	2,500단위	3,000단위	3,200단위

① 2,400단위
② 2,600단위
③ 2,640단위
④ 2,700단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2분기에는 2,500단위를 판매하고 기말에 600단위를 남겨야 하며, 기초에 이미 500단위가 있다. 따라서 새로 생산할 수량은 **2,600단위**이다.

계산 과정

생산예산은 **예산판매량에 목표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차감**하여 구한다. 이미 보유한 제품은 새로 생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으며, 기말에 남길 제품은 판매량 외에 추가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에서 2분기 예산판매량은 2,500단위이다. 2분기 말에는 다음 분기인 3분기 예산판매량 3,000단위의 20%를 남겨야 하므로 목표 기말재고는 $3,000 \times 0.2 = 600$단위이다.

2분기 기초재고는 1분기 기말재고와 같다. 1분기 말에는 2분기 예산판매량의 20%를 유지하므로 $2,500 \times 0.2 = 500$단위이다. 문제의 연초재고 300단위는 1분기 기초재고이며, 2분기 기초재고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2분기 생산량은 $2,500 + 600 - 500 = 2,600$단위로 ②와 일치한다. 기초재고 500단위와 생산량 2,600단위의 합에서 판매량 2,500단위를 빼면 목표 기말재고 600단위가 남는다.

NoteBase

문 32. ㈜한국은 단일의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 A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지만, 제품 B는 분리점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한다.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0이다. ㈜한국은 순실현가치법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단,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제품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총액)	최종 판매가격 (단위당)
A	150단위	-	₩2,000
B	200단위	₩100,000	1,500

① ₩80,000

② ₩100,000

③ ₩120,000

④ ₩14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와 B의 순실현가치는 각각 300,000원과 200,000원이다. **B의 순실현가치 비율 40%**를 결합원가 200,000원에 적용하면 B의 배부액은 8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순실현가치법은 각 제품의 최종 판매가액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제품 B는 분리점에 시장이 없으므로 최종 판매가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추가가공원가를 빼야 한다.

제품 A는 150단위를 단위당 2,000원에 판매하며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배부기준인 순실현가치는 150×2,000=300,000원이다.

제품 B의 최종 판매가액은 200×1,500=300,000원이다. 여기서 추가가공원가 총액 100,000원을 차감하면 순실현가치는 200,000원이다. 표의 추가가공원가는 단위당 금액이 아니라 총액이므로 생산량을 다시 곱하지 않는다.

두 제품의 순실현가치 합계는 300,000원+200,000원=500,000원이다. B의 배부비율은 $\frac{200,000}{500,000}=40\%$ 이므로,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200,000\times0.40=80,000$원이다.

B의 추가가공원가 100,000원은 B에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분리점 이후 원가이다. 이를 합치면 B의 총제품원가는 180,000원이지만, 질문은 결합원가 배부액만 묻는다.

따라서 제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① 80,000원이다.

NoteBase

문 33. ㈜한국의 20×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당기 중 직접재료의 매입액은 ₩180,000이고, 가공원가(전환원가)는 ₩87,000이다. ㈜한국의 20×1년 매출원가는?

구 분	20×1. 1. 1	20×1. 12. 31
직 접 재 료	₩10,000	₩14,000
재 공 품	20,000	10,000
제 품	16,000	22,000

① ₩263,000

② ₩267,000

③ ₩273,000

④ ₩28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직접재료 사용액 176,000원에 가공원가를 더하면 당기총제조원가가 263,000원이다. 여기에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기말 재고**를 차례로 조정하면 매출원가는 267,000원이다.

계산 과정

직접재료는 매입액 전부가 당기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재고 증감을 조정한다. 표에서 기초 직접재료는 10,000원, 기말은 14,000원이다. 따라서 직접재료 사용액은 10,000 + 180,000 − 14,000 = 176,000원이다.

가공원가(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따라서 **직접재료 사용액에 가공원가를 더한** 당기총제조원가는 176,000 + 87,000 = 263,000원이다.

재공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의 원가이다. 기초 재공품 20,000원을 더하고 기말 재공품 10,000원을 빼면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를 얻는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20,000 + 263,000 − 10,000 = 273,000원이다.

완성된 제품 중에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있으므로 제품 재고를 다시 조정한다. 기초 제품 16,000원을 더하고 기말 제품 22,000원을 빼면 **실제로 판매된 제품의 원가**가 된다. 매출원가는 16,000 + 273,000 − 22,000 = 267,000원이며,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4.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500,000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2,000시간이다. 20×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 과소(부족)배부액은 ₩15,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① ₩435,000

② ₩450,000

③ ₩465,000

④ ₩48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250원이고 실제 1,800시간에 대한 배부액은 450,000원이다. **15,000원 과소배부**되었으므로 실제 발생액은 배부액보다 큰 **465,000원**이다.

계산 과정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과 실제 배부기준량**으로 배부한다.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예정 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눈 $500,000 \div 2,000 = 250$원/시간이다.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시간이므로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250 \times 1,800 = 450,000$원이다. 예산 500,000원 자체가 실제 작업에 배부된 금액은 아니다.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큰 경우이다. 따라서 실제 발생액-450,000=15,000이고, 실제 발생액은 $450,000 + 15,000 = 465,000$원으로 ③과 일치한다.

확인하면 실제 발생액 465,000원 중 450,000원만 배부했으므로 부족액이 15,000원이다. 과소배부액은 예산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가 아니라,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NoteBase

문 35. (주)한국의 공장은 두 개의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X, Y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간 용역수수관계와 부문별 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각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다. 제조부문 X에 배부될 보조부문의 원가는?

소비부문 /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A	B	X	Y
발생원가	₩20,000	₩10,000	₩120,000	₩150,000
A	–	50%	20%	30%
B	40%	–	30%	30%

① ₩13,000

② ₩13,500

③ ₩16,500

④ ₩17,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②이다. 상호 용역을 반영하면 A의 총원가는 30,000원, B의 총원가는 25,000원이다. X의 배부액은 $30,000 \times 20\% + 25,000 \times 30\% = 13,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사이의 용역 교환까지 모두 반영한다. 보조부문 A와 B의 상호 용역을 반영한 총원가를 각각 A, B라 하면, A는 자체 발생원가 20,000원에 B가 제공한 용역 40%를, B는 자체 발생원가 10,000원에 A가 제공한 용역 50%를 더한다.

따라서 연립방정식은 $A = 20{,}000 + 0.4B$, $B = 10{,}000 + 0.5A$이다.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A = 20{,}000 + 0.4(10{,}000 + 0.5A) = 24{,}000 + 0.2A$이므로 $A = 30{,}000$원이다. 이에 따라 $B = 10{,}000 + 0.5 \times 30{,}000 = 25{,}000$원이다.

X는 A 용역의 20%, B 용역의 30%를 소비한다. 따라서 X에 배부할 보조부문원가는 aligned&30,000×20\%+25,000×30\%&=6,000+7,500=13,500aligned 원으로 **정답은** ②이다.

Y에는 A와 B에서 각각 30%가 배부되므로 $30{,}000 \times 30\% + 25{,}000 \times 30\% = 16{,}500$원이 배부된다. X와 Y의 배부액 합계 $13{,}500 + 16{,}500 = 30{,}000$원은 두 보조부문의 자체 발생원가 합계 $20{,}000 + 10{,}000$원과 일치한다.

문제가 묻는 것은 X의 최종 총원가가 아니라 **X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이다. 따라서 X 자체 원가 120,000원을 답에 더하지 않으며, Y 자체 원가 150,000원도 이 계산에 쓰지 않는다. ③의 16,500원은 Y에 배부되는 금액이고, ①의 13,000원과 ④의 17,000원은 X의 상호배분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6. ㈜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년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650이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생 산 량	5,000단위	고정제조간접원가	₩450,000
판 매 량	4,500단위	고 정 판 매 관 리 비	200,000

① ₩260,000

② ₩265,000

③ ₩275,000

④ ₩28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변동원가계산은 제품원가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외**한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90원을 빼면 단위원가는 560원이고, 기말 500단위의 재고액은 28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모두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변동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0×1년 초에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기초제품은 없다. 표의 생산량 5,000단위에서 판매량 4,500단위를 빼면 기말제품은 500단위이다. 재공품도 없다는 조건을 적용한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frac{450,000}{5,000}$ = 90원이다. 생산된 모든 제품에 배부하므로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을 분모로 사용한다.

전부원가 기준 단위당 제품원가 650원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90원을 제외하면 변동원가 기준 단위당 제품원가는 560원이다. 고정판매관리비 200,000원은 두 원가계산 방법 모두에서 기간비용이므로 제품원가에서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500단위×560원=280,000원이다. 전부원가 기준 기말재고 325,000원에서 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45,000원을 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④ 280,000원이다.

NoteBase

문 37. ㈜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한국의 생산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구 분	수량(개)	완성도	직접재료원가	가공원가
기초재공품	2,000	80%	₩195,000	₩55,000
당기착수	13,000		780,000	440,000
기말재공품	3,000	20%		

① 직접재료원가: ₩60, 가공원가: ₩40

② 직접재료원가: ₩65, 가공원가: ₩39

③ 직접재료원가: ₩75, 가공원가: ₩40

④ 직접재료원가: ₩75, 가공원가: ₩45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작업분을 제외**한다. 당기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 13,000개, 가공 11,000개이므로 당기 발생원가를 나누면 각각 60원과 4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새로 수행한 작업량과 당기 발생원가**만 대응시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기초재공품에 이미 투입된 직접재료와 전기에 수행한 가공작업은 당기 환산량에서 제외한다.

물량 흐름: 기초재공품 2,000개와 당기착수 13,000개 중 기말재공품이 3,000개이므로 당기완성품은 2,000 + 13,000 − 3,000 = 12,000개이다. 이 중 기초재공품에서 완성된 2,000개를 빼면 당기착수·당기완성품은 10,000개이다.

직접재료의 당기 완성품환산량: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에는 전기에 재료가 모두 투입되어 당기에 추가할 재료가 없다. 반면 당기착수·당기완성품 10,000개와 기말재공품 3,000개에는 당기 재료가 전량 투입되었다. 따라서 환산량은 0 + 10,000 + 3,000 = 13,000개이다. **기말 가공완성도 20%를 재료 환산량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공원가의 당기 완성품환산량: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완성도에 따라 환산한다. 기초재공품 2,000개에는 남은 20%의 작업만 당기에 수행하여 2,000 × (1 − 0.8) = 400개가 반영된다. 당기착수·당기완성품은 10,000개, 기말재공품은 3,000 × 0.2 = 600개이므로 총 환산량은 400 + 10,000 + 600 = 11,000개이다.

단위당 원가: 선입선출법이므로 기초재공품에 포함된 직접재료원가 195,000원과 가공원가 55,000원은 당기 단위당 원가의 분자에 더하지 않는다. 당기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780,000원과 가공원가 440,000원을 각각 당기 환산량으로 나눈다.
직접재료원가: $\frac{780,000}{13,000} = 60$원

가공원가: $\frac{440,000}{11,000} = 40$원

따라서 직접재료원가 60원, 가공원가 40원으로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8. ㈜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동시간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실제 노무원가 발생액 ₩245,000
실제 직접노동시간 7,000시간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35,000(불리)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6,000(유리)

① 6,800시간
② 6,850시간
③ 7,150시간
④ 7,200시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실제임률은 시간당 35원이고 임률차이가 불리하므로 표준임률은 30원이다. 능률차이 6,000원이 **유리**하다는 것은 실제 사용시간이 표준보다 200시간 적다는 뜻이므로, 허용 표준시간은 7,200시간이다.

계산 과정

실제노동시간을 AH, 실제임률을 AR, 표준임률을 SR,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노동시간을 SH라 하자.
실제임률은 실제 노무원가를 실제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므로 $AR = \frac{245,000}{7,000} = 35$원/시간이다.

임률차이는 $AH(AR - SR)$로 구한다. 35,000원이 불리하다는 것은 실제임률이 표준임률보다 높다는 뜻이다.
$7,000(35 - SR) = 35,000$
따라서 $SR = 35 - \frac{35,000}{7,000} = 30$원/시간이다.

능률차이는 **표준임률**로 시간 차이를 평가하며, $SR(AH - SH)$로 구한다. 6,000원이 유리하므로 실제 사용시간이 허용 표준시간보다 적고, 위 식의 부호는 음수이다.
$30(7,000 - SH) = -6,000$
따라서 $SH = 7,000 + \frac{6,000}{30} = 7,200$시간이다.

실제 7,000시간은 허용 표준시간보다 200시간 적으며, 이를 시간당 표준임률 30원으로 평가하면 6,000원의 유리한 능률차이가 된다. 따라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동시간은 7,200시간으로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9. 국도관리운영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A 기금의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로 옳은 것은?

프로그램 총원가 ₩10,000 자산처분손실 ₩5,000
프로그램 수익 7,000 이자수익 1,000
인건비 11,000 제재금수익 1,000

① 재정운영순원가: ₩13,000, 재정운영결과: ₩14,000
② 재정운영순원가: ₩14,000, 재정운영결과: ₩13,000
③ 재정운영순원가: ₩17,000, 재정운영결과: ₩18,000
④ 재정운영순원가: ₩18,000, 재정운영결과: ₩17,000

정답 4번

NoteBase

공통 해설

인건비는 **관리운영비**, 자산처분손실은 **비배분비용**, 이자수익은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한다.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10,000 − 7,000) + 11,000 + 5,000 − 1,000 = 18,000원이다.
제재금수익은 비교환수익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차감하므로 재정운영결과는 18,000 − 1,000 = 17,000원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ZyYyjddRcXrKE8AQZpdoURRQ3Og2jaFY.webp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9myP-jmxb1FuXLaIResYV2ZBcrss2ym5.webp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KKrRSchcSaursMWtwmzIv8f3qGFWiA_r.web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NoteBase

문 4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이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정답 2번

①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에 따른 취득원가는 **유상거래이면 공정가액, 무상거래이면 장부가액**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NoteBase

④

보증충당부채는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NoteBase